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자격증 보유 여부가 산재 이후  
직장복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보건전공  
이 진 화

# 자격증 보유 여부가 산재 이후 직장복귀에 미치는 영향


지도 원 종 욱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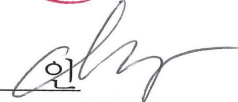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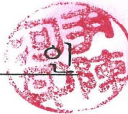
2019 년 12 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보건전공  
이 진 화

# 이진화의 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원종욱 

심사위원 정진주 

심사위원 윤진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9년 12월 30일

## 감사의 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과에 입학하여 국제캠퍼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참석한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졸업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작성에 도움을 주셨기에 그 고마움은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우선하여 학교입학 시점부터 졸업 때까지 학문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삶의 스승으로서 여러 가지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원종욱 교수님에게 가장 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탄탄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논문을 심사해주신 정진주 교수님과 윤진하 교수님, 어려운 학문을 유쾌한 위트로 풀어주신 김치년 교수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보건대학원 생활 동안 항상 옆에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움 준 박찬혁 선생님과 이소영 선생님, 논문작성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배숙원 선생님께서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옆에서 항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준 조재현 선생님께서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제 대학원 진학에 가장 큰 기쁨을 표현하셨던 아버지, 항상 사랑으로 절 지켜주시는 어머님께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입학 전부터 최고의 동반자로 항상 제 옆을 지켜준 윤주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직 작지만 강한 힘과 지식으로  
저를 지켜주는 이시현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잠시 잊고 있었던 배움의 소중함과 학문의 깊이에 대해서 다  
시 한번 깨닫고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배움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정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들과 가족들에게 감사드리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찬  
란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9년 12월

이 진 화 올림

## 차 례

I. 서론 .....	1
II. 연구대상 및 방법 .....	5
III. 연구결과 .....	9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격증 보유 여부 .....	9
2. 대상자의 직무적 특성에 따른 자격증 보유 여부 .....	10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장복귀 여부 .....	12
4. 대상자의 직무적 특성에 따른 직장복귀 여부 .....	14
5. 자격증 보유여부에 따른 직장복귀 .....	16
IV. 고    찰 .....	19
V. 결    론 .....	24
참 고 문 헌 .....	25

## 표 차례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격증 보유 여부 .....	9
표 2. 대상자의 직무적 특성에 따른 자격증 보유 여부 .....	11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장복귀 여부 .....	13
표 4. 대상자의 직무적 특성에 따른 직장복귀 여부 .....	15
표 5.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른 직장복귀(직장복귀-미복귀) .....	17
표 6.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른 직장복귀(원직복귀-재취업-미복귀) ..	17
표 7.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른 직장복귀(성별) .....	19
표 8.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른 직장복귀(종사상지위) .....	19



##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대상 .....	5
------------------	---

##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산재요양종결자를 대상으로 자격증보유 여부가 산재 이후 직장복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한 산재보험패널 제 1차(2013년)부터 제 5차(2017년)자료를 이용하였다. 표본 중 중도 탈락자, 자영업자, 자료 소실 등을 제외하여 최종 표본수는 1,458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0~40대 연령대와 남성, 그리고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산재 이후 직장복귀율이 높았다.

둘째, 분석 결과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0대일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격증 보유율이 높았다.

상용직이 일용직에 비해 자격증 보유 비율과 직장복귀율이 다소 높았으며, 근로기간이 길수록 자격증보유 비율과 직장복귀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업종에 따라서는 서비스업에서 자격증 보유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직장복귀율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격증 보유자의 직장복귀율이 미보유자에 비해 의미있게 높았다.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 계층에서, 상용직에 비해 일용직 계층에서 자격증 보유여부가 직장복귀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복귀 및 취업이 수월한 상용직,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일용직, 여성의 직장복귀에 있어서 자격증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취업 취약계층의 직장복귀를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등의 지원에 더 큰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

핵심어: 산재보상, 산재패널, 산재보험, 자격증, 직장복귀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산업재해란 업무상 원인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애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2010년부터 0.69%에서 2015년 0.5%, 2016년 0.49%, 2017년 0.48%로 꾸준히 하락하고는 있지만 2017년 전체 재해자 수 89,848 명 중 1,957명이 사망하였고, 업무상 질병 근로자는 9,183명이었다(고용노동부, 2018).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의 주요 소득 원천인 노동력의 상실로 인해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후유증 및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근로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 관계 등에 영향을 주어 삶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김선미, 2015; 박애선; 김영춘, 2018).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재 후에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보상과 지원이 중요하다.

산업재해로 얻은 질병이나 장애에 대해 금전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금전적 보상으로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삶을 꾸준히 영위하는데 있어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으므로 재해자가 안정적인 직장 또는 원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원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재해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소득의 원천이 되어줄 뿐 아니라 자아실현, 소속감, 사회적 관계 유지 등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근간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금전적 보상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임란, 2012).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으로 복귀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의 정도와 그로 인한 장해 정도이지만, 이 외에도 성별, 나이,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 그리고 산재 이후 재활 프로그램 및 보상의 수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주환,2009).

산업재해 이후 직장복귀를 다룬 여러 논문들은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와 관련된 요인을 보기 위해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요인(성별, 나이, 혼인상태, 교육수준, 지역 등)와 직업적 요인(소속 사업장의 산업분류, 업종분류, 사업장 규모, 사업장내 지위 등)과 장해 부위 및 종류, 사고형태, 장해등급, 치료기간 등 재해와 관련 요인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강희태 등(2006)의 연구와 같이 원직 복직 여부를 동일회사 동일직종, 동일회사 다른직종, 다른회사 다른직종, 미복귀 등으로 세분화하여 여러 변수들이 직장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연구, 강동욱(2017)의 연구와 같이 산재패널을 이용하여 직업복귀요인의 시간변화를 반영한 연구 등 세분화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산재 근로자의 직장복귀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재해 근로자의 자격증 보유 여부를 간과하였다.

자격증과 취업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보면 대졸자의 자격증 취득 유무가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만기,2008; 육현민, 2010; 박윤경과 이영민,2012). 또한 박창호 등(2016)은 군 복무 중 취득한 자격증이 전영 후 취업하는데 있어 자격증이 취업 소요기간 단축 및 임금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후 복직을 원하는 산재 근로자에게도 자격증 취득 여부가 직장복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격증은 취업 및 재취업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취업 시장 역시 고용주와 근로자 간 정보 비대칭에 의한 역선택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격증 보유 여부가 이러한 문제를 다소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자격증 보유자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미보유자에 비해 기술 수준이 높으며, 따라서 생산성이 더 높다는 신호를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사용자는 자격증 보유 여부를 통해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감추어진 속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 비대칭에 따른 역선택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해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격증 보유 여부가 산업재해 이후 산재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격증 보유 여부가 재해근로자의 재해 이후 직장복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 이후 직장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알아본다.

둘째, 자격증 보유 여부가 산재 이후 직장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 II.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1차부터 5차까지 산재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다. 1차 패널에 참여한 2000명 중에서 5차년도까지 계속 조사되었던 161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384명은 제외하였다. 또한 5차까지 패널 조사에 연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102명을 제외하였다.

재해 이후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와 재해 이전 종사상지위가 자영업자 고용주였던 사람과, 조사 자료가 충분치 않은 사람 등 56명을 제외하여 최종 연구대상 표본 수는 1,458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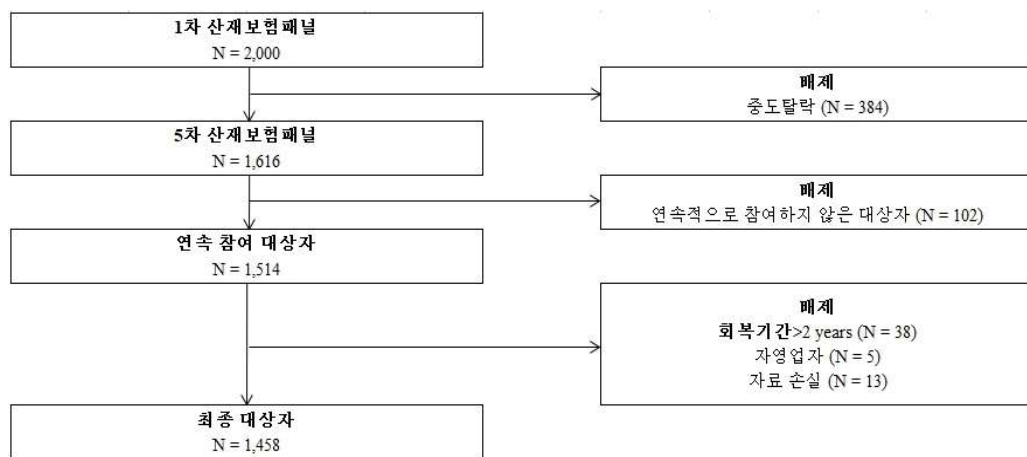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대상자

## 2. 연구방법

### 가.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통계자료는 모두 통계처리 프로그램(SPSS/21.0 PC)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자격증 여부에 따른 직장복귀 상태 교차비를 확인하기 위해, 이항/다항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binomial/ multinomial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른 직업복귀 여부를 세분화하여 살펴보기 위해 직업복귀를 단순 복귀-미복귀로 분류한 경우와 직업복귀를 미복귀-원직복귀-재취업으로 세분화한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기 위해 단순히 사고유형, 장애등급을 변수로 포함한 모형과 혼인상태, 교육수준, 종사상지위 등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전체 근로자수, 근로기간, 산업 등 산업 특성 변수까지 모두 포함한 모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나. 변수의 정의

####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혼인여부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산업, 종사상지위 등 산업 특성 변수가 있다.



## (2) 산재장해등급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산재보상보험법 제5조). 산재장해등급은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제1급 ~ 14급, 장해없음 등 총 15개로 구분되나 본 연구에서는 1 ~ 3등급, 4 ~ 7등급, 8 ~ 10등급, 11 ~ 14등급, 무장해 5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 (3) 직업복귀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 놓여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근로를 하게 된 상태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직업복귀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당시 근무하던 원래 직장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 원직장복귀와 산업재해 발생 당시와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게 된 재취업으로 구분된다.

### (가) 원직장복귀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당시 사업장으로 복귀한 상태.

### (나) 재취업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당시 일자리가 아닌 다른 일자리로 취업한 상태.

(다) 미취업

지난 4주 내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으로, 일자리가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던 상태 및 일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상태.

(4) 자격증

산재 패널에서 자격증은 국가자격증(기술사, 기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타 국가자격증) 또는 국제(외국)자격증 보유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일반 운전면허 제외).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자격증 보유 여부에 대해 응답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격증 보유 여부

전체 대상자 중 자격증 보유자는 597명으로 전체의 41.0%였다. 연령에 따른 자격증 보유 여부를 살펴보면, 30대 미만에서는 51.2%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30대는 57.7%가 자격증을 보유하여 이 연령대가 자격증 보유율이 가장 높았다. 40대는 52.3%, 50대 35.9%, 60대 20.3%로 4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격증 보유율이 낮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자격증 보유율이 44.7%로 여성(23.1%)보다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대학교 이상 졸업자의 자격증 보유율이 63.7%로 중학교 이하 23%, 고등학교 졸업자 49.6% 보다 높았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격증 보유 여부

일반적특성	구분	보유		미보유		계	p-Value
		명	%	명	%		
연령	30대 미만	42	51.2	40	48.8	82	<0.0001
	30~39	120	57.7	88	42.3	208	
	40~49	190	52.3	173	47.7	363	
	50~59	188	35.9	336	64.1	524	
	60대 이상	57	20.3	224	79.7	281	
성별	남자	538	44.7	665	55.3	1203	<0.0001
	여자	59	23.1	196	76.9	255	
혼인상태	미혼	108	52.9	96	47.1	204	<0.0001
	기혼	436	41.3	620	58.7	1056	
	기타	53	26.8	145	73.2	19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37	23.0	458	77.0	595	<0.0001
	고등학교	316	49.6	321	50.4	637	
	대학교 이상	144	63.7	82	36.3	226	
	전체	597	41.0	861	59.1	1,458	

## 2. 대상자의 직무적 특성에 따른 자격증 보유 여부

연구 대상자의 직무적 특성에 따른 자격증 보유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종사자 555명 중 223명(40.2%)가 자격증 보유자였고 건설업은 전체 386명 중 152명(39.4%)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서비스업 종사자 185명 중 96명(51.9%)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기타 종사자 332명 중 자격증 보유자는 126명(38%)였다. 분류 대상 전체 직종 중 서비스업 종사자의 자격증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자격증 보유 여부를 살펴보면, 상용직 종사자는 전체의 812명, 일용직 종사자는 646명 이었으며 이 중 상용직 369명(45.4%), 일용직 228명(35.3%)가 자격증 보유자로 상용직의 자격증 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간에 따른 자격증 보유 여부를 살펴보면, 1년 미만 근로한 대상자의 37.9%가 자격증보유, 1년~3년 기간 근로한 대상자의 자격증 보유 비율 41.1%, 3년 이상 근로한 대상자의 자격증 보유 비율 49.4%로 근로기간이 길수록 자격증 보유비율이 명확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 관심 주제인 직장복귀 여부에 따른 자격증 보유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직장복귀를 미취업과 취업으로 구분하였을 때, 전체 대상자 중 미취업자는 155명, 취업자는 1,303명 이었으며 취업자의 42.6%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미취업자의 27.1%에 비해 자격증 보유 비율이 약 15%가량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직장복귀를 원직장복귀와 재취업으로

로 세분화하였을 때, 취업자 1,303명 중 556명이 원직장에 복귀하였으며 747명은 다른 사업장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직장복귀자의 경우 약 45.9%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재취업자의 경우에는 약 40.2%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전체 직업복귀자 중 원직장복귀자의 자격증 비율이 약간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대상자의 직무적 특성에 따른 자격증 보유 여부

직무적특성	구분	보유		미보유		계	p-Value
		명	%	명	%		
산업	제조업	223	40.2	332	59.8	555	0.0121
	건설업	152	39.4	234	60.6		
	서비스업	96	51.9	89	48.1		
	기타	126	38.0	206	62.1		
중사상지위	상용직	369	45.4	443	54.6	812	<0.0001
	일용직	228	35.3	418	64.7		
사고유형	손상	537	40.3	797	59.8	1334	0.0782
	질병	60	48.4	64	51.6		
전체 근로자 수	5명 미만	114	34.0	221	66.0	335	0.0007
	5~9명	126	36.6	218	63.4		
	10~29명	181	45.9	213	54.1		
	30명 이상	176	45.7	209	54.3		
근로기간	1년 미만	352	37.9	578	62.2	930	0.0011
	1년 이상~3년 미만	78	41.1	112	59.0		
	3년 이상	167	49.4	171	50.6		
장해등급	1~3급	0	0.0	6	100.0	6	0.2068
	4~7급	19	34.6	36	65.5		
	8~10급	103	39.2	160	60.8		
	11~14급	368	42.1	507	57.9		
	무장해	107	41.3	152	58.7		
직장복귀 1	미취업	42	27.1	113	72.9	155	0.0002
	취업	555	42.6	748	57.4		
직장복귀 2	미취업	42	27.1	113	72.9	155	0.0001
	원직장복귀	255	45.9	301	54.1		
	재취업	300	40.2	447	59.8		
전체		597	41.0	861	59.1	1,458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장복귀 여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격증 보유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것에 이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장복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대상자 1,458명 중 취업자는 1,303명, 미취업자는 155명이었다.

연령에 따른 직장복귀 여부를 먼저 살펴보면 30대 미만에서는 약 89%(73명)이 산재 이후 직장에 복귀하였으며 약 11%(9명)이 미취업 상태로 남게 되었다. 30대의 95.2%, 40대의 95.6%가 산재 이후 직장 복귀가 가능하여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연령대의 직장 복귀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정년 후 은퇴 연령대인 60세 이상에서는 76.5%로 직장 복귀율이 가장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성별에 따라 직장복귀 여부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전체 1,203명 중 1,093명(90.9%)이 직장에 복귀하였으며 여성은 전체 255명 중 210명(82.4%)가 직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

혼인 상태에 따라서는 미혼자의 90.7%, 기혼자의 89.6%가 직장에 복귀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학교 졸업 이하에서 84.2%, 고등학교 이상 졸업에서 92.6%, 대졸 이상에서 93.8%가 직장에 복귀하여 학력 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직장에 복귀하는 비율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장복귀 여부**

일반적특성	구분	미취업		취업		계	p-Value
		명	%	명	%		
연령	30대 미만	9	11.0	73	89.0	82	<0.0001
	30~39	10	4.8	198	95.2	208	
	40~49	16	4.4	347	95.6	363	
	50~59	54	10.3	470	89.7	524	
	60대 이상	66	23.5	215	76.5	281	
성별	남자	110	9.1	1093	90.9	1203	<0.0001
	여자	45	17.7	210	82.4	255	
혼인상태	미혼	19	9.3	185	90.7	204	0.4218
	기혼	110	10.4	946	89.6	1056	
	기타	26	13.1	172	86.9	19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4	15.8	501	84.2	595	<0.0001
	고등학교	47	7.4	590	92.6	637	
	대학교 이상	14	6.2	212	93.8	226	
전체		155	10.6	1303	89.4	1458	

#### 4. 대상자의 직무적 특성에 따른 직장복귀 여부

대상자의 직무적 특성에 따른 직장복귀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종사 대상자 555명 중 501명(91.9%)이 재해 후 직업에 복귀하여 가장 높은 복귀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서비스업 종사 대상자가 90.8%의 복귀율로 높은 복귀율을 보였으며, 건설업 종사 대상자의 복귀율이 386명 중 333명(86.3%)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복귀 여부를 살펴보면, 상용직 812명 중 760명이 직업에 복귀하여 93.6%의 복귀율을 보였으며, 일용직의 경우 646명 중 543명이 복귀하여 84.1%로 상대적으로 낮은 복귀율을 보였다.

근속기간의 경우, 근속년수가 길수록 직업복귀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930명 중 812명으로 87.3%의 대상자가 직업으로 복귀하였고 3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338명의 대상자 중 318명이 직업에 복귀하여 94.1%의 상대적으로 높은 복귀율을 보였다. 1년이상 3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90명중 173명이 직업에 복귀하여 91.1%의 복귀율을 보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자격증 보유에 따른 직장복귀 여부를 살펴보면, 자격증 보유 대상자 전체 597명중 555명이 직업에 복귀하여 약 93%의 높은 복귀율을 보인 반면, 자격증 미보유 대상자 861명 중 748명이 직업에 복귀하여 86.95%의 복귀율을 보여 자격증 보유자의 복귀율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다.



**표 4. 대상자의 직무적 특성에 따른 직장복귀 여부**

직무적특성	구분	미취업		취업		계	p-Value
		명	%	명	%		
산업	제조업	45	8.1	510	91.9	555	0.0331
	건설업	53	13.7	333	86.3	386	
	서비스업	17	9.2	168	90.8	185	
	기타	40	12.1	292	88.0	332	
종사상지위	상용직	52	6.4	760	93.6	812	<0.0001
	일용직	103	15.9	543	84.1	646	
사고유형	손상	143	10.7	1191	89.3	1334	0.7187
	질병	12	9.7	112	90.3	124	
전체 근로자 수	5명 미만	45	13.4	290	86.6	335	0.2987
	5~9명	33	9.6	311	90.4	344	
	10~29명	40	10.2	354	89.9	394	
	30명 이상	37	9.6	348	90.4	385	
근로기간	1년 미만	118	12.7	812	87.3	930	0.0018
	1년 이상~3년 미만	17	9.0	173	91.1	190	
	3년 이상	20	5.9	318	94.1	338	
장해등급	1~3급	5	83.3	1	16.7	6	<0.0001
	4~7급	16	29.1	39	70.9	55	
	8~10급	39	14.8	224	85.2	263	
	11~14급	75	8.6	800	91.4	875	
자격증	무장해	20	7.7	239	92.3	259	0.0002
	보유	42	7.0	555	93.0	597	
	미보유	113	13.1	748	86.9	861	
전체		155	10.6	1303	89.4	1458	

## 5. 자격증 보유여부에 따른 직장복귀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 주제인 자격증 보유여부가 산재 후 직장복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자격증 보유여부에 따른 직장복귀 상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직장복귀는 단순히 직장복귀와 미복귀, 그리고 직장복귀를 원 직장복귀와 재취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차비를 확인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표 6).

이 추정 결과에서 모형 1은 성별과 나이 변수를 보정하여 추정한 결과이며, 모형 2는 모형 1에 더해 혼인상태, 교육수준, 산업, 종사상지위, 전체 근로자 수, 근로기간 등 일반적, 직무적 특성을 모두 반영한 결과이며, 모형 3은 모형 2에서 장애등급 변수까지 추가적으로 보정한 모형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1과 모형 2에서 자격증 보유 여부가 피재자의 직장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미보유자에 비해 자격증 보유자의 직장복귀율이 모형 1에서는 약 1.38배, 모형 2에서는 약 1.2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직장복귀를 원직장복귀와 재취업으로 세분화하여 교차비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추정 결과, 모형 1에서 자격증 보유 여부는 원직복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모형 1과 모형 2에서 재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격증 보유자는 미보유자에 비해 원직복귀 확률은 약 1.47(모형 1)배 높았으며 재취업 확률은 약 1.30(모형 2)~1.33(모형 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른 직장복귀(직장복귀-미복귀)

자격증	직장복귀					
	모형 1*		모형 2**		모형 3***	
	Odds	95%CI	Odds	95%CI	Odds	95%CI
있음	1.38	1.16-1.65	1.25	1.05-1.50	1.14	0.94-1.37
없음	1.00		1.00		1.00	

\*, 성별, 나이 보정

\*\* , 모형 1, 혼인상태, 교육수준, 산업, 종사상지위, 근로자수, 근로기간 보정

\*\*\*, 모형 2, 장애등급

표 6.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른 직장복귀(원직복귀 - 재취업 - 미복귀)

자격증	원직복귀						재취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1*		모형 2**		모형 3***	
	Odds	95%CI	Odds	95%CI	Odds	95%CI	Odds	95%CI	Odds	95%CI	Odds	95%CI
있음	1.47	1.22-1.77	1.15	0.94-1.40	1.05	0.85-1.29	1.33	1.11-1.59	1.30	1.08-1.57	1.18	0.98-1.43
없음	1.00		1.00		1.00		1.00		1.00		1.00	

\*, 성별, 나이 보정

\*\* , 모형 1, 혼인상태, 교육수준, 산업, 종사상지위, 근로자수, 근로기간 보정

\*\*\*, 모형 2, 장애등급

이어서 성별과 종사상 지위에 따라 자격증이 직장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기 위해, 표본집단을 남성과 여성,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구분하여 직장복귀 상태의 교차비를 추정해 보았다. 여기서는 직장복귀와 미복귀로 구분한 모형과 직장복귀를 원직복귀, 재취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추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자격증 보유자와 미보유자 간 직장복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여성의 경우 자격증 보유자와 미보유자 사이에 직장복귀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자격증 보유자가 미보유자에 비해 원직복귀율은 약 3.21배, 재취업률은 5.85배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본 집단을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구분하여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른 직장복귀 상태의 교차비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용직의 경우, 자격증 보유자와 미보유자 사이에 직장복귀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용직의 경우 직장복귀에 자격증 보유자와 미보유자의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일용직의 경우 자격증 보유자의 재취업률은 미보유자에 비해 약 1.37배 더 높았으나, 다만 원직복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7.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른 직장복귀(성별)

성별	자격증	직장복귀-미복귀		원직복귀-재취업-미복귀			
		직장복귀		원직복귀		재취업	
		Odds	95%CI	Odds	95%CI	Odds	95%CI
남성	있음	0.92	0.74-1.13	0.89	0.71-1.13	0.93	0.75-1.16
	없음	1.00		1.00		1.00	
여성	있음	4.60	2.68-7.91	3.21	1.74-5.91	5.85	3.34-10.27
	없음	1.00		1.00		1.00	

표 8.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른 직장복귀(종사상지위)

(N=1,458)

종사상 지위	자격증	직장복귀-미복귀		원직복귀-재취업-미복귀			
		직장복귀		원직복귀		재취업	
		Odds	95%CI	Odds	95%CI	Odds	95%CI
상용직	있음	1.05	0.78-1.42	0.97	0.71-1.32	1.09	0.79-1.49
	없음	1.00		1.00		1.00	
일용직	있음	1.32	1.03-1.69	1.13	0.84-1.54	1.37	1.07-1.76
	없음	1.00		1.00		1.00	

## IV. 고찰

본 연구는 1차~5차(5년간) 산재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히 자격증 보유 여부가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직장복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 연령, 성별, 교육수준, 장애등급, 자격증 보유 여부 등이 직장복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젊은 근로자가 직장복귀율이 높았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직장복귀율이 더 높았고,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직장복귀율이 높았다. 이는 다른 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하였다(강희태, 2006; 정건강, 2018). 또한 자격증이 있는 근로자가 그렇지 못한 근로자에 비해 직장복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자격증 보유 여부가 직장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격증 보유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30대 미만~40대까지 비교적 젊은 계층일수록 자격증 보유 비율이 높았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이 높은 비율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격증 보유 비율이 높았다(표 1).

연구 대상자의 직무적 특성에 따르면,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기타 순으로 자격증 보유 비율이 높았다.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상용직이 일용직에 비해 자격증을 더 높은 비율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근로자 수가 많은 큰 업체일수록 자격증 보유 비율이 약간씩 증가하였다.

다음 직장복귀 상태에 따라 자격증 보유 여부를 살펴본 결과, 먼저 직장복귀와 미복귀로 구분하였을 때, 미복귀자 중 72.9%는 자격증 미보유자였으며 27.1%만이 자격증 보유자로 미취업자 중 대부분이 자격증 미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복귀자 중 57.4%는 자격증 미보유자, 42.6%는 자격증 보유자로

확인되었다. 직장복귀를 재취업과 원직복귀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원직복귀자 중 약 45.9%는 자격증 소지자, 54.1%는 자격증 미소지자로 확인되었다. 재취업자의 경우 40.2%가 자격증 소지자로 원직복귀자에 비해 보유 비율은 다소 낮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장복귀 여부를 살펴본 결과,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연령인 30대와 40대의 직장복귀율이 가장 높았으며, 남성의 경우 직장복귀율이 더욱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장복귀율이 약간 더 높았으나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이상 졸업자의 직장복귀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직무적 특성에 따른 직장복귀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산업별로는 제조업-서비스업-기타-건설업 순으로 직장복귀율이 높았다. 또한 상용직의 경우 일용직에 비해 복귀율이 더 높았으며 근속기간이 길수록 직장에 복귀할 확률도 높았다. 장애등급에 따라서는 노동력 상실률이 낮은 장애(낮은 장애 등급)일수록 직장복귀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격증 보유자의 직장복귀 비율은 약 93%로 미보유자의 직장복귀율 86.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본격적으로 자격증 보유 여부가 직장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라 직장복귀 상태의 교차비를 살펴본 결과, 장애등급을 제외한 일반적, 직무적 특성을 보정한 모형에서 유의하게 자격증 보유자의 직장복귀율이 더욱 높았다. 직장복귀를 원직복귀와 재취업으로 세분화하여 교차비를 추정한 모형에서는 자격증 보유자가 미보유자에 비해 더욱 높은 재취업률을 보였다.

이어서 계층에 따라 자격증이 직장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기 위해, 표본 집단을 성별과 종사상지위에 따라 구분하여 추정해 보았다. 추정 결과, 남성은 자격증 보유자와 미보유자 간 직장복귀율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성의 경우 자격증 보유자가 미보유자에 비해 4~5배 정도 원직복귀 재취업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사상 지위에 따라 구분하여 추정된 결과에서는 상용직의 경우 자격증 보유자와 미보유자 간 직업복귀율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용직의 경우 자격증보유자가 미보유자에 비해 직장복귀율이 1.32배, 재취업률이 1.37배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취업 취약계층에 있는 여성과 일용직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원만한 남성과 상용직에 비해 직장복귀에 있어 자격증의 영향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의 더욱 세부적인 요인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종합하자면, 자격증 보유 여부는 피재근로자의 재해 후 직장복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여성과 일용직 등 상대적으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격증 보유 여부가 취업확률을 높인다는 결과를 제시한 이선우(1997), 이만기(2008)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특히 자격증 보유 여부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주장한 이석원, 정술(2016)의 연구와도 부합한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직면한 한계점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었다.

첫째, 산재보험패널에서는 자격증의 보유 여부 및 국가공인자격증 여부 등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어 어떤 직종과 관련한 어떤 종류의 자격증인지 여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어려웠다. 이에 자격증 관련 직종에 대한 직장복귀와 자격증과 무관한 직종에 직장복귀를 구분하지 못하여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둘째, 산재보험패널에서는 자격증의 유형(기사-산업기사-기술사 등)를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각 유형별 표본이 매우 적어 자격증 유형별로 조사가 불가능하였다. 이에 자격증의 유형에 따라 직장복귀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김작해볼 수 있음에도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분석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기존의 직장복귀에 관한 연구와는 달리 자격증 보유 여부를 주요 설명변수로 직장복귀와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격증의 유형별, 보유기간별에 따른 직장복귀와의 관련성 등 보다 심층적인 연구에 관해서는 좋은 향후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V. 결론

본 연구는 산재 이후 직장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자격증이 직장복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0~40대 연령대와 남성, 그리고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산재 이후 직장복귀율이 높았다.

둘째, 분석 결과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0대일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격증 보유율이 높았다.

상용직이 일용직에 비해 자격증 보유 비율과 직장복귀율이 다소 높았으며, 근로기간이 길수록 자격증보유 비율과 직장복귀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업종에 따라서는 서비스업에서 자격증 보유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직장복귀율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격증 보유자의 직장복귀율이 미보유자에 비해 의미있게 높았다.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 계층에서, 상용직에 비해 일용직 계층에서 자격증 보유 여부가 직장복귀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복귀 및 취업이 수월한 상용직,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일용직, 여성의 직장복귀에 있어서 자격증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취업 취약계층의 직장복귀를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등의 지원에 더 큰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 VI. 참고문헌

강희태, 권영준, 주영수, 임형준, 김용규, 이화평, 김정민. 산업재해 근로자의 직장복귀 및 원직복귀 예측요인, 대한산업의학회지 제18권 제3호, 2006:18(3):221-231.

김태기, 채창균.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2009;28(2), 89-107.

박창호, 송재근, 이임주, 임무열, 윤상은, 배종환, 김승현. 군 복무 중 취득한 자격증의 취업효과에 대한 연구. 경영경제연구, 2016;38(2), 203-231.

육현민. 대학 졸업생의 첫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아주대학교 대학원, 2010

이만기. 대졸자의 직업훈련경험이 노동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08;21(3), 157-176.

이석원, 정술.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장애와 고용, 2016; Vol.26, No.1, 41-66

이선우.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 프로빗을 이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1997;287-313.

이주환.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9

임란. 산재장애인의 재취업 및 재취업유형 결정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2

정건강. 산재종결 이후 재해근로자의 경제적 상태의 변화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8

<Abstract>

## The Effect of Certificate Status on the Return to Work after an Industrial Accident

Jinwha Le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ongwook Won, M.D., Ph.D.)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having a certificate on the return to work after an industrial accident.

The data were used from the 1st(2013) to the 5th(2017) of Panel Stud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The final sample number was 1,458 except for self-employed, and data lo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30s and 40s, the males, and the lower the disability grade, the higher the return to work after industrial accidents.

Second, as a result of analysis, males were in their 30s and 40s with

a strong economic activity, males were higher than females, and higher education levels held higher qualifications.

The percentage of certificate holders and return to work was slightly higher for regular workers than for daily workers. According to the type of industry, the percentage of certificate holdings was highest in the service industry, and the rate of return to work was highest i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Third, the return to work of certificate holder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non-holder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 holding of certificat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returning to work in the female class compared to the male and the daily working class compared to the regular workers.

This shows that the qualifications play a more important role in returning to work and employment, which is relatively weak compared to men's daily employment, and women's return to work. These findings suggest that greater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support the acquisition of certification in order to return to the workplace for those who are vulnerable to employment.

---

key words: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anel Stud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certificate, return to work